

역동적인 영어

미 국무부 / 국제정보프로그램국



Society & Values: 통권 12권 / 제8호

국제정보프로그램:

코디네이터 Jeremy F. Curtin
실무편집인 Jonathan A. Argolis

제작총괄 George Clack
편집장 Richard W. Huckaby
편집실장 Robin L. Yeager
제작부장 Christian Larson
제작차장 Sylvia Scott
웹제작 Janine Perry

편집차장 Chandley McDonald
카피편집인 Rosalie Targonski
사진편집인 Ann Monroe Jacobs
참조전문가 Martin J. Manning
저작권전문가 Connie Faunce
표지디자인 Bryan Kestel

편집부 일등은 일부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이미지와 비디오를 제공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저널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와 비디오는 미 국무부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를 보증·선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저널의 제목 '역동적인 영어(Dynamic English)'는 '현대 미국영어의 변화'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본 저널은 'Dynamic English'라는 표현이 결부된 여타의 프로그램, 간행물 또는 제품과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은 <e저널 USA> 제호 아래 총 5종— Economic Perspectives, Global Issues, Issues of Democracy, Foreign Policy Agenda, Society & Values—의 온라인 저널을 출간하고 있으며 미국의 사회, 가치, 사상, 제도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매달 영어로 당월호가 발간되고 난 후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번역본이 후속적으로 게재됩니다. 필요에 따라 특정 호는 아랍어, 중국어 및 페르시아어로 번역·발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저널은 통권과 호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본 저널에 실린 주장이나 의견들은 반드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 국무부는 본 저널에 링크된 인터넷 사이트들의 내용이나 액세스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그러한 책임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본 저널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도표들은 저작권 제한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복제 또는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본 저널상에 표시된 해당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은 최신 호와 지난 호들을 비롯해 앞으로 발간 예정인 저널들의 목록을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usinfo.state.gov/journals/journals.htm>). 본 저널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거주하시는 국가 주재 미국대사관이나 본지 편집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인
eJournal USA
IIP/PUBJ
U.S. Department of State
301 4th St. S.W.
Washington, D.C. 20547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메일: eJournalUSA@state.gov

이번 호에 대한 소개

‘변화는 좋은 것’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일란 스테이벤스는 사전 편찬자들이 단어의 전체 목록을 만들고 각 단어를 정의하는 즉시 그 목록과 의미가 시대에 뒤진 것이 되어 버린다고 지적합니다.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변화의 유형과 과정을 설명할 때에도 비슷한 문체에 봉착합니다. 이번 호의 제목을 ‘역동적인 영어’라고 정한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가 과학기술, 세계화 및 이민이라는 영향력 하에 21세기로 진화해 나가는 방식을 탐구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한 한 개의 새로운 영어 단어나 용법과 만납니다. 대중매체를 접하거나 블로그 또는 기타 웹사이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인들은 영어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해외에서 미국인을 만나거나 미국으로 돌아오면 새로운 단어와 표현에 놀라게 되고, 방금 접한 단어와 표현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듯해서 놀라게 됩니다. 필자가 ‘24/7’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이미 그 표현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지속되는 사안,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말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필자는 예전에 필자의 설명을 듣던 한 여대생이 무언가 놀라운 내용을 듣자 “Shut-up!” 하고 외쳤을 때의 충격을 쉽사리 잊지 못합니다. 상담직원과 동료 학생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별다른 반응이 없는 모습을 보니, 여태껏 무례한 말이라고 필자가 가르쳤던 표현에 새로운 용법이 추가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hut-up’이라는 표현은 ‘말도 안 돼!’ 혹은 ‘설마!’ 등의 의미로 발전한 것입니다.

살아 있는 언어는 모두 진화합니다. 영어는 다른 언어보다 더 쉽게 변하는 듯합니다. <영어의 발명: 알기 쉬운 영어발달사(Inventing English: A Portable History of the Language)>라는 저서에서 언어학자 세스 레러는 시대에 걸쳐 영어가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베오울프(Beowulf)>에서 초서를 거쳐, 미국영어에 새로운 철자법과 용법을 만들고자 노력한 웹스터, 그리고 오늘날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는 6000개에 이르는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영어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PBS TV 방송국에서 제작한 <미국영어 할 줄 아세요?(Do You Speak American?)>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신조어를 만든 미국 대통령으로 토머스 제퍼슨을 꼽았습니다.



사진 제공: © AP Images/찰스 크루파

‘ginormous’는 <웹스터 사전>에 추가되어야 할 100여개의 신조어 중 하나다.

이 프로그램의 웹사이트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언어는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씨앗을 뿌리고, 사회적 맥락은 그 씨앗이 잘 자라고 퍼질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좋은 것일까요? PBS 프로그램 시리즈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떨어졌는가? 이메일은 언어를 망치고 있는가?” 2001년에 발표된 평론집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식(The Way We Talk Now)>에서 저자 지오프리 너버그는 “미국영어는 항상 다른 언어의 단어들을 차용하는 데 관대했다.”고 말합니다. 너버그는 언어든 음식이든 여러 문화의 요소들을 혼합하면 새롭고 흥미롭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언어의 변화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에 대해, 그들이 언어(또는 언어사용자들)보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와 용법을 만들어 전파하는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비꼽니다. 레러는 본 저널의 기고자들 대다수와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우리말이 타락했다고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영어의 역사는 발명의 역사이다. 새로운 단어와 새로운 자아를, 그리고 언어의 시장에서 유통될 표현들을 만들어 낸 역사인 것이다.”

2004년판 평론집의 머리말에서 너버그가 밝혔듯, 언어의 변화는 사회 자체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미국 문화의 특징과 가치의 목록에는 ‘change’(변화), ‘innovation’(혁신), ‘melting pot’(용광로), ‘practicality’(실용성), ‘directness’(직접성) 등의 단어가 포함됩니다. 어쩌면 미국영어는 항상 변화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문화의 다른 변화를 반영한다는 사실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로빈 L. 이거



SOCIETY & VALUES

미 국무부 / 2007년 8월호 / 통권 12권 / 제8호

http://usinfo.state.gov/pub/ejournalusa.html

역동적인 영어

6 변화는 좋은 것

일란 스테이번스, 매사추세츠 주 앰허스트칼리지
라틴아메리카·라티노 문화학 교수
다른 살아 있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영어는 역동
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항상 변화한다.

9 수수께끼를 풀다: 미국 속어 해독 도구

A. C. 켐프, 슬랭시티 웹사이트 디렉터 겸 매사
추세츠 주 MIT 영어학과 강사
인터넷상에는 미국 속어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가 무수히 많다.

13 블로그 용어

국경 없는 기자회견
<블로거와 사이버 반체제 인사를 위한 핸드북>
의 내용을 소개한다.

15 청소년들의 말

로빈 프리드먼, 언론인 겸 작가
청소년들은 속어 창조의 최전선에 있다.

18 게임 시작! 스포츠 관련 미국영어 관용구

진 헨리, 작가 겸 교사
스포츠는 그 대중성을 발판으로 미국영어에서
많은 관용구들을 만들어 냈다.

21 힙합 문화가 일상 영어에 미치는 영향

에밋 G. 프라이스 3세,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노
스이스턴대학 음악·미국흑인학 조교수
힙합 세대의 어휘가 미국의 주류문화로 흘러 들
어갔다.

24 스팅글리시: 스페니시와 잉글리시의 결합

일란 스테이번스, 매사추세츠 주 앰허스트칼리지
라틴아메리카·라티노 문화학 교수
미국에서는 스페인어와 영어가 섞여 혼종 언어
가 형성되었다.

27 아랍어에서 영어로

앨런 뎀-스미스, 언론인 겸 교사
수백 개의 영어 단어가 아랍어에서 파생되었다.

31 말안장에 오른 아랍어

케리 폴 나브한, 작가
말과 관련된 다수의 영어 단어가 아랍어에서 스
페인어를 거쳐 만들어졌다.

온라인 비디오

- ATT/Cingular 무선전화기 광고:

“IDK, My BFF Jill”

어머니와 딸이 침대들의 문자 메시지 언어로 대화한다.
위의 표현은 이렇듯 유머러스하고 과장된 광고 방송에 등장한다.

AT&T 광고(BBDO 제작)

- 힙합

힙합이라는 현상을 다룬 TV 다큐멘터리 시리즈 <인디펜던트 렌즈>의 예고편이다.

여기서는 힙합 관련 이미지가 다수 제시되고,
본 저널에 실린 에밋 프라이스의 기사
‘힙합 문화가 일상 영어에 미치는 영향’에도 포함된 주제를 소개한다.

동영상 제공: ITVS

<http://usinfo.state.gov/journals/itsv/0607/ijselijse0607.htm>



변화는 좋은 것

일란 스테이번스



사진 제공: © AP Images/모스크바-폴먼 데일리 뉴스, 지오프 크리민스
8살짜리 아이들이 새 사전을 보고 있다.

한 사회에서 언어는 본질적으로 살아 있으며 항상 변화한다. 본 기사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존중하며 특히 영어의 역동성에 기여하는 요소들에 대해 논의한다. 일란 스테이번스는 매사추세츠 주 앰허스트에 위치한 앰허스트칼리지 라틴아메리카-라티노 문화학 교수이다. 저서로는 <사전의 나날(Dictionary Days)>(Graywolf) 및 <사랑과 언어(Love and Language)>(에일대학교출판부) 등이 있다.

영어 단어의 수는 총 몇 개인가? <옥스퍼드 영어사전(OED)>에 따르면 총 60만 개 이상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 각자는 극히 일부만 기억할 수 있다. 정확히 몇 개를 기억하는가? 누구에게 물느냐에 따라 다르다. 인간의 어휘력은 살아가면서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 혀짤배기소리를 내는 아기 때는 그저 몇 마디, 십대 청소년일 때는 은어 위주의 어휘,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상황(가정, 직장, 친구 등)에 따라 다양하다. 사실상 어휘 목록이란 결코 완벽하게 작성할 수 없다. 우리가 항상 변해서뿐만 아니라 언

어 자체가 정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성을 지닌 사전인 OED는 부피가 계속 커진다. OED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엄청난 수의 표제어들이 고어이며 오늘날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상반되는 요소, 즉 ‘단명성’과 ‘지속성’이 영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직 죽은 언어만 정태적이다. 아람어를 예로 들어 보자. 오늘날 아람어는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나 종교학자들에게로 사용이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fax’, ‘soft money’, ‘steroid’의 등가어를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 아람어 어휘는 정태적이다. 반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람어 등 여러 현대 언어는 부단히 변화한다. 이들 언어는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어에 접근하여 낯선 표현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외국어로 내보낸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이동 규모가 방대해지고, TV, 라디오, 영화, 인터넷 등의 즉각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언어의 이중교배가 가속화되었다. 영어



사진 제공: © AP Images/손 볼드윈
 도심 거리에 뒤섞인 얼굴들은 현대 미국 사회의 구성을 반영하며 언어가 혼합되는 방식을 설명해 준다.

에는 게르만어 단어가 몇 개나 있는가? 그리고 스페인어에는 얼마나 많은 영어식 표현이 수용되는가? 대답은 역시 ‘아주 많이’다. 단명성과 지속성 사이의 긴장은 삶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언어는 알맹이를 지워 버릴 정도로 변화될 수 없다. 그러나 알맹이만으로는 언어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없다.

당연하게도 어떤 언어는 다른 언어보다 더 불안정하다. 필자는 멕시코 태생이다. 1985년 미국(정확히는 뉴욕)으로 이민 온 직후, 필자는 미국영어의 풍부함에 놀라워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 수십 가지 언어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영어를 잘 하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사람들이 출신국에서 함께 가져온 언어들의 편재성과 충돌했다. 그 결과 바벨탑 이야기와 같은 뒤범벅이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어디를 가든 항상 다른 종류의 의사소통 신호와 상호 작용하는, 불순물이 섞인 영어가 들렸다. 필자와 같은 수백 만 이민자들은 영어를 길거리에서 배운다. 더욱 공식적인 교육을 받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들조차도 대중문화의 편재성에 영향받는다. 대중문화는 엄격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 활발하고 예상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대중문화를 통해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하려면 그 자유분방함을 파악해야 한다.

필자의 서재에는 사전이 많다. 대부분 단일어 사전이다. 두세 권은 역사사전이다. 일부는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사전, 남서부지역 영어 사전, 퀘벡 프랑스어 사전 등 국가별·지역별로 분류되어 있다. 의학, 스포츠, 광고 등 주제별로도 있다. 또한 이중언어 사전들, 그리고 두 권짜리 히브리어-그리스어-라틴어 사전과 같은 다국어 사전들도 있다. 필자는 이들 사전을 옆에 두면서 영감을 얻는다. 지금까지 창작된 모든 시—성경, 호머, 단테에서 셰익스피어, 에밀리 디킨슨, 앨런 긴즈버그, 데렉 윌콧에 이르는—의 언어 재료가 사전들 속에 뒤섞인 채 들어 있는 것이다. 필자에게 시인이란 언어의 ‘발견자’이다. 시인들은 언어에 전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낸다.

사전은 언어를 응결된 형식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언어 용법의 지침서이자 지혜의 저장소이다. 또한 과거의 화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억상자이다. 아울러 사전은 강압의 도구로도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 탄압의 시기에 전체정권은 반란자들이 용어를 오용한다는, 다시 말해 공동체의 유산을 악용한다면 그 증거를 사전에서 찾는다.



사진 제공: © AP Images/린 슬래드키

니카라과, 태국, 에콰도르 출신인 이들 3명의 새로운 미국인은 세계 각지에서 온 6000여 명의 귀화 미국시민들과 함께 2007년 6월 13일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비치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전에서 가장 사랑스러우면서도 좌절감을 안겨 주는 특징은 ‘무기력함’이다. 본질적으로 사전이 품는 야망은 항상 좌절되기 마련이다. OED 신판이 발간되자마자 이미 그 내용은 시대에 뒤진 것이 된다. 사람들이 고안한 수천 개의 단어가 인쇄 원고에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시포스의 신화에서처럼, 사전 편찬자들은 다시금 끊임없이 작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완벽하게 성공할 수 없는 작업이다. 언어를 가두겠다는, 언어를 관리하겠다는 불가능한 작업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언어는 본질적으로 활달하다. 언어의 에너지는 끝이 없다.

앞서 필자는 이민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 언론인 H. L. 멘켄이 정확히 파악한 바와 같이 미국영어의 풍부함은 전 세계 각지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의 활기에 힘입은 것이다. 국가가 올바르게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들 이민자들은 사회라는 모자이크의 일부가 되기에 충분한 영어 실력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기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동화 과정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인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미국 역시 그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변화한다. 이러한 상호교류는 특히 언어의 차원에서 두드러

진다. 아일랜드인, 스칸디나비아인, 유태인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함과 동시에, 미국의 언어는 그들이 가져 온 표현과 통사구조와 기타 언어적 특성을 흡수했다. 그리고 미국 인구의 나머지가 그러한 요소들을 포용한 것이다.

사전 편찬자 상당수가 이민 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이 그다지 놀랍지 않다. 그들의 부모는 영어를 학습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에서는 영어 단어에 대한 논쟁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이 단어의 철자는 왜 이런 식으로 쓰는가? 발음은 어떻게 하나? 이 단어의 어근은 무엇인가? 이민자들은 개종자라는 사실을, 필자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방인으로서 영어를 접하게 된 그들은 확신을 지니고 영어를 포용한다. 그리고 원어민에게는 거의 없는 열정으로 영어의 규칙을 공부한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질문해 보자. 영어 단어의 수는 총 몇 개인가? 필자의 모범답안은 다음과 같다. ‘결코 충분하지 않다.’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풀다 : 미국 속어 해독 도구

A. C. 캠프



사진 제공: © 2007 Jupiterimages Corporation
사전에 없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영어는 학습자나 원어민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때가 많다. 본 기사에서는 새로운 속어 표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A. C. 캠프는 슬랭시티(<http://www.slancity.com>)라는 미국 속어 웹사이트의 디렉터이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영어학과의 강사이기도 하다.

12년 전 ESL 교실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이래로 필자는 단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단어가 더 많이 생긴다는 학생들의 푸념을 자주 들어 왔다.

필자는 학생들의 좌절감을 이해한다. 언어 학습에서 가장 험난한 과제는 어휘 익히기이다. 그런데 영어는 다른 언어보다 단어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정평이 났다. 여러 추정치가 있지만, <옥스포드 영어사전> 제2판에는 현재 사용되는 단어 17만 개가 정의되어 있다. 이 위압적인 수치는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단어들 때문에 영어 학습자들이 곤란을 겪지만,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비공식적인 단어

들이다. 거리, 대중문화, 그리고 내부집단에서 사용하는 어휘이다. 거의 해독 불가능해 보이는 이들 부호에는 원어민들도 속수무책일 때가 있다. 침대 자녀를 둔 부모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언어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약간의 작업과 인터넷만 있으면 영어의 ‘셜록 홈즈’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다. 예컨대 대중음악의 경우, 가수들은 가사의 정확한 발음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사실상 노래 가사를 오해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오해된 노랫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사이트

(<http://www.kissthisguy.com>)

도 있을 정도이다.



속어를 해독하려면 사립탐정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



사진 제공: © AP Images/토니 에이블라
 샌프란시스코가 래퍼 'E-40'은 신조어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스스로를 '속어의 왕'이라고 부른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낯선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뇌에서 그 단어를 더 친숙한 단어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래퍼 'E-40'이 청중에게 'get hyphy'(미쳐 버려) 하고 노래 부르면, 해당 속어 표현을 모르는 청중은 'get high fee'(요금을 많이 내)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인터넷에는 팬들이 만든 노랫말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고, 가수들 역시 공식 사이트에 노래 가사를 자주 올린다. 아울러 인터넷에는 <심슨가족>이나 <24> 등에서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TV·영화 트랜스크립트를 수록한 웹사이트가 많다. 트랜스크립트는 완성된 프로그램의 대사를 받아 적은 것이기 때



사진 제공: © AP Images/존 파티필로
 <심슨가족>은 특별한 감탄사와 표현들로 유명세를 얻었다.

문에 제작 과정 중에 수시로 바뀌는 대본보다 훨씬 정확하다.

정확한 단어를 찾았다면 이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차례다. 일반적인 사전부터 찾기 시작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해마다 많은 사전이 신조어를 추가한다. '원룩'(<http://www.onelook.com>)이라는 웹사이트는 온라인 사전 10여 개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최신 거리용어와 속어를 찾고 싶다면 '어번 디క్ష너리'(<http://www.urbandictionary.com>)라는, 인터넷 최대의 참고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이 사이트의 콘텐츠는 사용자가 만든다. 날마다 수백 만 명의 청소년이 새 단어를 추가한다.



사진 제공: © AP Images/크리스 피젤로
 TV 드라마 <24>의 주인공 키피어 서덜랜드.

방문객들은 단어 뜻의 정확성에 대한 등급을 매긴다. 가장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은 항목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성이 향상된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다. 투표수가 적은 경우 그 정의가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다. 반면 동일한 단어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컨대 온라인 게임의 신참 플레이어를 가리키는 단어인 'n00b'는 철자가 독특하다. 그런 식의 표현을 본 적이 없다면 알파벳 'o' 대신에 숫자 '0'을 넣은 단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서는 'noob', 'nube' 혹은 'newb'라고 쓰인 단어의 정의도 찾을 수 있다.

'어번 디셔너리'가 십대들의 신조어를 찾기 위한 사이트라면, 그보다 규모가 작은 '더블-텅드 디셔너리'(http://www.doubletongued.org)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매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조어와 은어를 배우기에 적합한 사이트이다. 자주 갱신되는 이 사이트는 단어의 정의와 아울러 경제, 스포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수록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속어는 특정 집단에서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스케이트보드 경기를 보거나 19세기 미국 카우보이에 대한 책을 읽거나 힙합 음악을 들을 때에는 특화된 사전을 참고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경우 인터넷 검색 창에 'glossary'(용어집)나 'dictionary'(사전)라는 키워드를 넣어

보라. 놀랍게도 거의 모든 스포츠, 취미, 직업에 대한 미니 사전들이 존재한다.

어떤 자료를 참조하던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은, 훌륭한 추리소설 작가라면 거짓 단서를 이야기에 삽입하듯 영어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속임수를 부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본인이 좋아하는 티셔츠를 보고 한 미국인 십대가 'sick'이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상할 것이다. 그러나 속어에서 'sick'은 대단한 칭찬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단어의 정의들을 모두 읽고 자신이 들었던 맥락에 가장 적합한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럼에도 거리에서 사용되는 몇몇 단어의 뜻을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문화적 맥락이 모호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슬랭시티'(http://www.slangcity.com)를 개발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영화대사와 대중가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영어와 관련하여 백 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어번 디셔너리'에서는 'skanking'이라는 단어를, 스카 음악에 맞춰 "양팔을 도리깨질하며 한 장소로 달려가는" 춤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경우, '유튜브'(http://www.youtube.com)에서 간단히 검색해 보면 실제 춤 동작을 보여 줄뿐만 아니라 해당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수십 개의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Flickr'(http://www.flickr.com)와 같은 사진 공유 데이터베이스에서

는 헤어스타일, 자동차 액세서리, 체스처 등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렇듯 어떠한 종류의 영어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설록 홈즈에게는 왓슨이라는 조수 한 명만 있었지만, 영어 단어 탐정들에게는 영어의 신비를 벗겨 줄 온라인 조수 수백 명이 대기 중이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언어의 수수께끼를 벗기려면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족하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웹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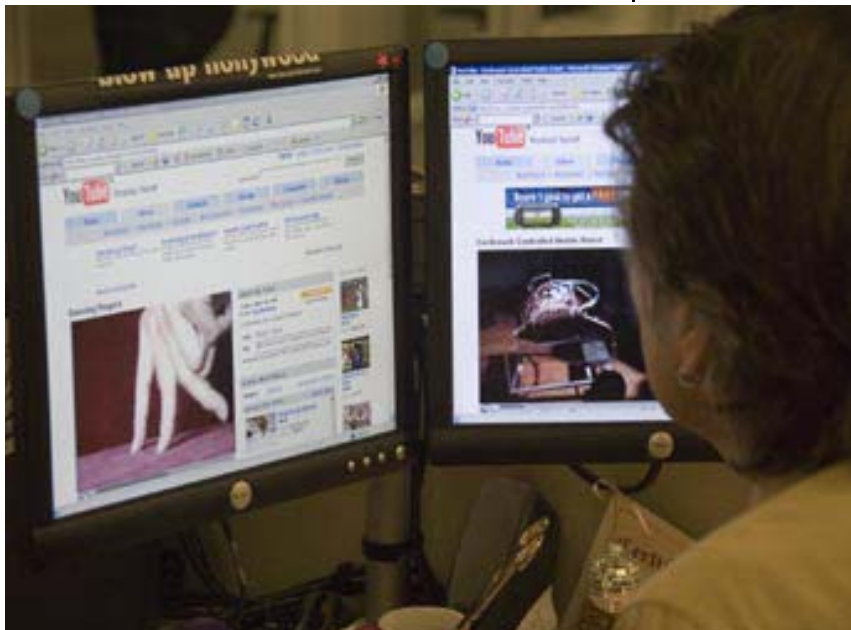


사진 제공: © AP Images/캐머런 블록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속어의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사진 제공: © AP Images/프랭카 브런스
J. 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많은 신조어를 제공했다.

온라인 미니 사전

랩 사전: <http://rapdict.org>
랩 음악에 사용되는 속어

Old West Legend:
<http://www.legendsofamerica.com/WE-Slang.html>
1800년대 미국 서부 속어

스케이트보드 용어집:
<http://www.exploratorium.edu/skateboarding/largeglossary.html>
샌프란시스코 과학탐험관에서 제공하는 스케이트보드 용어와 동영상

대공황기 속어 사전:
<http://xroads.virginia.edu/~MA04/hess/Slang/slang.html>
1928~1941년에 사용된 속어

노래 가사 및 TV·영화 대사

Leo's Lyrics: <http://www.leoslyrics.com/>
가수, 제목 또는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노래 가사 데이터베이스

Drew's Script-O-Rama: <http://www.script-o-rama.com>
영화·TV 대본 및 트랜스크립트

Twiz TV: <http://www.twiztv.com/scripts/>
신작을 포함한 유명 TV 프로그램의 트랜스크립트
(필자 주: 유감스럽게도 이 유용한 사이트에는 팝업 광고 창이 뜬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 용어

Pointblog.com



사진 제공: © AP Images/베베토 메투스
줄리아 랭바인의 블로그에는 많은 네티즌 독자들이 방문한다.

블로그(blog): 'Weblog'의 준말.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글, 링크 또는 사진을 항상 게시하는 웹사이트.

블로그하다(to blog):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자료를 블로그에 올린다.

블로거(blogger): 블로그 운영자.

블로그스피어(blogsphere): 모든 블로그, 또는 블로그 커뮤니티.

블로그롤(blogroll): 블로그에 나타나는 외부 링크의 목록. 종종 다른 블로그로 연결되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의 세로단에 위치한다. 친구 사이인 블로거들의 '하위 커뮤니티(sub-community)'를 가리키기도 한다.

블로그웨어(blogware): 블로그 운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코멘트 스팸(comment spam): 스팸 메일과 비슷하다. '스팸봇(spambot)'이라는 로봇이 가짜 댓글의 형식을 통해 블로그를 광고로 넘치게 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로서, 블로그 플랫폼에는 댓글의 일부 사용자나 주소를 삭제할 도구가 필요하다.

컨텐츠 신디케이션(content syndication): 웹사이트의 저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사이트의 컨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모블로그(moblog): 'mobile blog'의 준말. 전화나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 어디서나 원격으로 갱신할수 있는 블로그.

고유링크(permalink): 'permanent link'의 준말. 블로그에 게시된 각 항목의 주소. 어떤 게시물이 웹사이트에서 '지난 글'(아카이브)로 보관된 후에도 영구적으로 북마크할 수 있는 수단.

포토블로그(photoblog): 사진들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게시되는 블로그를 주로 가리키는 말.

포드캐스팅(podcasting): 'iPod'와 'broadcasting'의 합성어. 블로그상에 동영상이나 음악 자료 등을 게시하고, 디지털 플레이어를 위해 RSS 피드를 올리는 것.

게시물(post): 블로그에 게시된 메시지, 뉴스, 사진, 링크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부 링크를 포함한 짧은 내용이고 방문객들이 댓글을 달 수 있다.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웹사이트에 가장 최근 게시된 항목을 처리하는 방식. 특히 블로그에 적합한 이유는 즐겨 찾는 블로그가 갱신될 때마다 사용자에게 알려 주기 때문이다. 다른 웹사이트가 (간단하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컨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컨텐츠의 '신디케이션'도 가능하다. 특히 미디어 웹사이트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사진 제공: © AP Images/캐런 템
작업 중인 포드캐스터.

사용자들에게 알려 주기 때문이다. 다른 웹사이트가 (간단하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콘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신디케이션’도 가능하다. 특히 미디어 웹사이트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RSS 애그리게이터(RSS aggregator): 블로거 자신이 즐겨 찾는 블로그의 RSS 피드, 특히 최신 게시물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서비스. ‘RSS 리더(RSS reader)’ 또는 ‘피드리더(feedreader)’라고도 한다.

RSS 피드 (RSS feed) : 블로그의 최신 게시물을 포함하

고 있는 파일. RSS 애그리게이터(리더) 를 통해 읽을 수 있으며, 블로그의 갱신 사실을 즉각적으로 보여 준다.

트랙백(trackback): 블로그의 어떤 게시물이 이전 게시물을 참조한다고 웹사이트들이 서로 알려 줌으로써 웹사이트끼리 자동적으로 소통하는 방식.

웹 다이어리 (Web diary):

블로그.

위키(wiki): 하와이어 ‘wikiwiki’ (빨리 빨리)에서 유래한 말. 방문객 누구나 쉽고 빠르게 갱신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한 ‘위키 엔진’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블로그와 위키는 일부 유사점도 있지만 상당히 다르다.

본 ‘블로그 용어’는 ‘국경 없는 기자회견(Reporters Without Borders)’[<http://www.rsf.org>]에서 발간한 <블로거와 사이버 반체제 인사를 위한 핸드북(Handbook for Bloggers and Cyber-Dissidents)>[http://www.rsf.org/IMG/pdf/handbook_bloggers_cyberdissidents-GB.pdf]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진 제공: © AP Images/디노 부르나스
잡스팟(Jobspot)에서는 위키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청소년들의 말

로빈 프리드먼



사진 제공: © 2007 Jupiterimages Corporation
도착한 메시지: 'How RU?'

십대들이 존재하는 한 속어도 존재한다. 오늘날의 전자식 소통수단과 일부 학자들의 태도 변화로 말미암아 속어는 구어에서 문어의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더욱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로빈 프리드먼은 언론인이자 아동 및 십대들을 위한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영어가 짧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옳은 생각이다. 뉴스바이트에서 문자 메시지와 갈수록 짧아지는 주의 지속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말을 더 짧게 하면서 속어에 더욱 의존한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술의 포화 상태, '숨칠 시간도 없이' 바쁜 생활, 십대들의 표현에 대한 유혹, 그리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향하는 진화의 수레바퀴 등의 피치 못할 사정들을 들 수 있다.

매일 수많은 의사소통이 온라인—비단 이메일뿐만 아니라 갈수록 소형화되는 장치들을 통한 문자 메시지도 포함하여—으로 진행되는 요즈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어는 일종의 합의된 약어로, 신비스럽게 조합된 숫자와 문자로,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 표정을 가장한 부호

로 축소되어 왔다. :)

소문자로만 표시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숫자들, 특히 '2'와 '4'는 각각 'to'와 'for'를 대신하여 주역을 맡는다. 그러나 훨씬 흥미로운 진화는 알파벳 'e' 대신에 숫자 '3'을 사용하고('b3' 및 'th3'), 숫자 '8'을 소리 나는 대로 사용하는 것('great' 및 'later' 대신 'gr8' 및 'l8r')이다.

이들 새로운 머리글자어들 중 일부는 자명하거나('you' 대신 'u', 'your' 대신 'ur'), 상당히 논리적이거나('before' 대신 'b4'), 알파벳 이름을 이용하거나('cutie' 대신 'qt', 'see you' 대신 'cu'), 축약어 구실을 하거나('because' 대신 'cuz'), 혹은 완벽한 머리글자어이다('best friends forever' 대신 'bff'). 한편 일부는 이상야릇하다('people' 대신 'peeps').

그런가 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속어가 그보다 훨씬 짧은 표현을 압도하는 경우도 있다.(i luv u'는 이제 'i heart u'로 표기된다.)

상당 기간 통용되어 온 다음 표현들은 알아보기가 쉽다. 'lol'(laugh out loud·크게 웃다), 'btw'(by the way·그건 그렇고), 'imho'(in my humble opinion·제 소견으로는).



사진 제공: © AP Images/마르시오 호세 산체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채팅은 십대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한편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불가사의할 정도이다. 'iykwim'(if you know what I mean·무슨 말인지 안다면), 'mtfbwy'(may the force be with you·포스가 그대와 함께 하길), 'wysiwyg'(what you see is what you get·보는 그대로 얻는다).

이렇듯 알파벳으로 점철된 말들은 언어학자와 컴퓨터 도사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든다. 그러나 차를 운전하면서 사무실 메모에 답신을 보내고자 이쑤시개 크기의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표현의 속도—혹은 필요성—에 대해 논쟁하기는 어렵다(앞서 언급한 행동은 권장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지만, 유감스럽게도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peeps'를 제외하고 앞서 제시한 사례 모두는 문어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속어이다. 구어 속어는 또 다른 얘기이다. 바로 이 영역에서 청소년 세대가 진가를 발휘한다.

오늘날의 속어는 과거의 암호보다 빠르게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2년 전에 유행한 표현이 오늘날의 십대들 사이에서 아무 이유 없이 버림받는다. '좋다'는 의미의 'phat', 'sweet', 'excellent', 'awesome'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1990년대의 'dude'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속어는 본질적으로 수명이 짧다. 속어가 속어다 우려면 항상 새로운 느낌이 들어야 한다. 속어는 패션과 같다. 오래 가지 않는 것이다. 결국 미국인들은 가장 유명한 말이라도 싫증을 낸다. 오로지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요즘에는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좋다' 또는 '매력적이다'라는 뜻으로 'hot'을 사용한다

면 'hot'한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혹은 (최소한 온도라는 관점에서) 대공황 이래로 모든 세대에게 호소력을 발휘한 단어 'cool'을 사용한다면 'cool'하게 보일 것이다.

'cool'은 속어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구시대적이다. 1930년대 재즈 문화에서 비롯되었지만, 이후 모든 세대가 이 표현을 받아들였다.

같은 뜻으로 사용되던 표현들—'bully', 'groovy', 'hep', 'crazy', 'bodacious', 'far-out', 'rad', 'swell' 등—은 'cool'과 같은 생존력을 유지하지 못했다.

'cool'은 오늘날의 십대들에게 흔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자주 사용한다. 본래 어른들은 아이들의 은어를 가로채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 '시장(市場)'을 상대로 말하는 법을 아는가의 여부는 이익이나 파산이냐를 가름한다. 청소년 시장 동향을 조사하는 기관인 테일러 그룹에 따르면, 미국 경제에서 십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7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stick it to the man'(대들다), 'you rock'(넌 정말 멋져), 'whatever'(어쨌거나 맞는 것 같아), '그러든가 말든가' 등), 'old school'(고전, '구식' 등), 'talk to the hand'(듣기 싫어) 등 왜 그렇게 많은 속어가 대중매체나 대중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나이 든 중년 세대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결국 속어에 내재하는 매력은 각각의 세대가 속어를 자신의 어휘로 만들 기회가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언어유희를 위해 사용되는, 다양하고도 재미있는 언어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표현은 좋지 않은 환경이 출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사실 속어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속어가 대중담론의 질을 저해한다고 오랫동안 공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속어가 지닌 힘을 드러내 줄 따름이다. 궁극적으로 속어는 표준영어보다 영리하다. 재미있고 외우기 쉬우며, 번뜩이는 유머와 심지어 시를 창작할 수도 있다.

1898년 초판 발행 이래로 존경받아 온 <웹스터 사전(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제3판(1961년)의



사진 제공: © AP Images/존 루
한 미국인 교사가 작문 숙제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인스턴트 메시징(IM) 용어와 철자법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이들 표현을 버릇처럼 사용한다.

표제어들은 대중적인 간행물에서 수집한 것들이다.

기존 사전들이 소수의 학자들에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한 것이다.

최초로 속어를 수록한 <웹스터 사전> 제3판에 대해 ‘끔찍하다’, ‘비통하다’, ‘수치스럽다’는 반응이 일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사전이 속어를 수록한다. 비록 모두가 반기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처방적(prescriptive)’이라고 알려진 진영은 사전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언어 사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는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심지어 그들은 반대 진영의 사람들을 ‘lexicographer’(사전 편찬자)라는 말 대신 ‘laxicographer’(흐트러진 편찬자)라고 비꼬아 부르면서 그들이 문맹을 조장한다고 비난한다.

반면 ‘기술적(descriptive)’인 진영이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어떠한 언어도 사전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믿는 학자들을 말한다. 이들 학자는 적절한 언어보다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모두가 이해하는 한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무방한 것이다.

나이 든 세대는 언어의 활발한 변화에 저항할지도 모른다.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한 향수, 혹은 나쁜 새 시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정확한 언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스윙과 지르락 문화가 당대의 유행 표현을 만들어 냈다. 1950년대에는 비트 시인들과 속사포로 말하는 라디오 DJ들이 활동했다. 1960년대의 주역은 히피였다. 오늘날의 속어는 힙합 문화와 랩 음악에서 비롯된다.

“Capiche, yo?”(이해가 되는가?)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 시작! 스포츠 관련 미국영어 관용구

진 헨리



사진 제공: © AP Images/폴 사쿠마
컴퓨터 게임이 다시 시작되어 모든 플레이어가 다시 참여할 수 있을 때 '게임 시작'이 선언된다.

미국인들이 즐기는 스포츠와 게임에서 파생된 관용구들은 미국영어에서 흔히 사용된다. 본 기사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와 매체에서 사용되는 관용구들의 예를 제시한다. 진 헨리는 <게임 방법: 스포츠 관련 미국영어 관용구(How to Play the Game: American English Sports and Games Idioms)>의 저자이다. 전직 교사이자 ESL 교수인 그녀는 버클리 주 캘리포니아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대학과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했다.

영어는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언어이다. 영어의 특성상 단어와 구절은 항상 추가되거나 삭제된다. 'carbon neutral'(카본 중립)이라는 표현은 작년 판 <뉴 옥스포드 아메리칸 디క్ష너리>에 추가되었고,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다. 'blog', 'to blog',

'blogging' 등의 표현도 일반 사전에 수록되었다. 이러한 역동성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관용구나 은유적 표현에도 적용된다.

관용구(idiom)란 문자 그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파생적 의미를 지닌 단어나 구절을 말한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관용구를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정착된 것에 대해 말하는 특정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관용구는 모든 언어에 존재한다. 그러나 구어체 미국영어에서 특별히 자주 사용된다.

미국영어의 관용구는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파생된다. 어쩌면 비공식적인 환경 때문에 스포츠 기자, 팬,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와 구절이 여타의 맥락에서도 사용되는지도 모른다. 스포츠 관련 표현은 항상 변화한다. 농구 골대 근처에서 쉽게 공을 던진다는 뜻의 'lay-up'(레이업)은 스포츠 이외의 맥락에서 '쉬운 일'이라



사진 제공: AP Images/니키 보어트먼
한 프로농구선수가 슬램덩크를 하고 있다.

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slam-dunk’(슬램덩크)라는 표현으로 진화했다. 선수들의 체격이 커지고 기량이 향상되면서 골대 앞에서 높이 뛰어올라 공을 바스켓으로 힘 있게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어체 미국영어를 익히려면 관용구와 은유적 표현, 특히 스포츠 분야의 표현을 알아야 한다. 스포츠는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 스포츠와 관련된 용어는 일상 업무와 연관을 맺기도 한다. 각각 야구와 미식축구에서 온 표현인 ‘pinch hit’와 ‘carry the ball’이 관용구로 사용되면 ‘동료나 상사를 대신하여 일하다’는 의미이다. 운동경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경기에서 파생된 용어와 관용구를 모르면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긴다.

어떤 단어나 관용구의 사용은 관련 운동경기의 대중성, 그리고 이들 경기를 즐기는 국가와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take a new tack’(새 방침을 정하다)나 ‘bail out’(‘구제하다’, ‘단념하다’ 등)과 같이 항해 용어에 바탕을 둔 관용구들은 미국 내륙지역보다는 동부 해안이나 서부 해안 지역에서, 그리고 요트 타기가 취미인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야구와 미식축구 관련 관용구가 많이 사용된다. 이들 스포츠가 미국에서 광범위한 인기를 누리기 때문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 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질문에 대한 내정자의 대응에 관해 언급하면서 미식축구 용어를 사용했다. “...라이스 내정자를 상대로 ‘범프 앤드 런’(bump-and-run·수비수가 공격팀 리시버와 충돌한 뒤 맨투맨으로 수비하는 방법) 전략을 펼쳤지만, 내정자는 수월하게 헤쳐 나갔다.”

어떤 관용구는 국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뉴욕의 한 티켓 판매업체가 내세운 광고에는 야구공 사진과 함께 ‘Always on the ball’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를 번역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설정한 글로벌 목표에 관해 언급하면서 데이빗 G. 빅터 스탠포드대학 교수는 ‘game pla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2007년 6월 1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빅터 교수는 글로벌 목표가 “[미국 내에서] 모종의 명확한 게임 플랜이 없으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어떤 관용구는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다. 2007년 6월 4일자 <뉴욕타임스>는 ‘롬니의 정치적 운명과 사업수익은 불가분의 관계(Romney Political Fortunes Are Tied to Riches He Gained in Business)’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베인[롬니의 회사]과 공동투자자들은 개별 회사에서 1억 달러 이상의 특별급여액을 뽑아냈다. 그럼으로써 베인은 사업체를 전매하기 전에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사진 제공: © AP Images/대론 커밍스
공을 가지고 달리는, 혹은 ‘공을 운반하는’(carry the ball) 미식축구 선수



사진 제공: © The New Yorker Collection 1988 Henry Martin from cartoonbank.com.
All Rights Reserved.
“포스터 씨가 와 계십니다. 사장님 ‘베이스’로 ‘터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는 ‘미끼 되찾기(getting back your bait)’라고 알려진 관행이다.” 이 기사에서는 낚시 용어가 사용된 것이다.

원래의 출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영어권이 관용구를 배우기는 어려울 때가 많다. 따라서 범주로 분류해서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야구나 축구와 같은 단체 스포츠는 규칙, 용어, 구장이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할 것이다. 카드 게임, 사냥, 낚시 등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어떤 표현의 출처가 되는 맥락이나 틀을 정해 놓으면 해당 표현의 축어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를 모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야구, 축구, 농구, 올림픽 경기 등의 TV 중계를 시청하면 미국 스포츠에 더욱 친숙해질 것이다. 문장의 맥락은 중요하다. 야구 표현인 ‘two strikes against him’은 타자가 아웃되기 전에 스트라이크 하나가 남았다는 의미이다. 학생들은 ‘He hit a

home run to left field with two strikes against him.’(투 스트라이크 상태에서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을 쳤다.) 같은 문장을 연습해 보면 좋다. 우선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 관용적 의미를 연습해 볼 수 있다. ‘He had two strikes against him when he interviewed for the job, because he had no experience.’(그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취직 면접 자리에서 스트라이크 두 개를 먹었다.)

‘play hardball’과 같은 표현들은 파생적 또는 관용적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된다. 예컨대 ‘Let’s play hardball on this contract.’라는 문장은 한 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와 협상하면서 양보하지 않

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용법은 축어적인 의미인 ‘야구하다’—‘hardball’은 야구공을 단단한 재질로 만들기 때문에 생긴 말—보다 더 전형적이다.

모임에 참석한 학생, 직장인 또는 정치인들은 관용구를 듣고 해당 모임의 맥락을 통해 그 의미를 추론하려고 할 것이다. 잘 모를 때에는 나중에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관용구 관련 서적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친구와 대화하며 해당 관용구를 연습해 본다. 기왕이면 구어체 영어를 잘 하는 사람과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힙합 문화가 일상 영어에 미치는 영향

에잇 G. 프라이스 3세



사진 제공: © AP Images/집 슬로시아렉/The Gazette
미시건 청소년센터에서 힙합을 주제로 벽화를 그리다가 브레이크댄싱을 하며 휴식 시간을 즐기는 청년.

도시 청소년들이 고안한 표현들은 소위 '힙합 세대'를 거쳐 미국 주류문화로 유입되었다. 에잇 G. 프라이스 3세는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있는 노스이스턴대학교의 음악·미국학인학 조교수이다. 그는 <힙합 문화(Hip Hop Culture)>(ABC-CLIO, 2006)의 저자이자 <대중음악학저널(Journal of Popular Music Studies)>의 편집장이다. 또한 3권짜리 <미국흑인음악 백과사전(Encyclopedia of African American Music)>(Greenwood Press, 2008년 발간 예정)의 편집실장이기도 한다.

언어는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언어도 변화한다. 언어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징후는 어휘의 급속한 확장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의 사전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두꺼워져 갔다. 글로벌 문화가 미국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입증하는 단어, 과학적 용도로 만들어진 단어,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 단어, 그리고 동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단어 등이 영어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마지막 부류의 단어들이야말로 영어를 가장 빠르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새로운 표현으로 부호화하려는 청소년들이 만들어 낸 단어들의 자극을 받는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발견, 새로운 욕구,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실제로 그러한 아이디어가 그다지 새롭지 않더라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힙합 세대(The Hip Hop Generation)>라는 저서에서 바카리 키트와나는 힙합 세대에 속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출생연도를 1965년에서 1984년까지로 잡는다. 분명 이 기간은 충분히 넓지 못하다. 복합적인 힙합 세대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표현과 접근법을 영어에 추가하기 때문이다.



사진 제공: © AP Images/스티븐 체민
러셀 시몬스는 힙합 운동의 선구자로서 힙합 공동체의 대변인과 지지자로 활동해 왔다.

힙합 문화

1960년대와 1970년대 뉴욕시의 거리마다 폭력과 사회적 부패와 경제적 붕괴로 점철되었던 시기에, 도시 빈민가에 사는 다양한 인종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직면하는 암울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 냈다. 이들 청소년은 기존의 랩, 그래피티, 춤 및 디제잉(deejaying·음향기와 레코드판을 이용하여 기존 곡을 짜집기하고 전혀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방법. 스크래칭, 특정 부분의 반복, 리믹스 등.)의 요소들을 통합함으로써, 주위에서 발견되는 절망의 대안을 창출했다.

1970년대 중반, 이러한 지역적 현상은 미국 주류문화에게 무시당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힙합 문화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와일드 스타일(Wild Style)>, <스타일 워즈(Style Wars)>, <비트 스트리트(Beat Street)>, <브레이킹(Breakin')> 등의 영화를 통해 전 세계 관객들은 영어의 독특한 글쓰기와 말하기 방식 등 힙합 문화의 여러 양상을 체험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인쇄매체와 방송

매체, 그리고 비디오 게임들마저도 힙합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버거킹, 코카콜라, AOL, 나이키, 리복 등의 기업은 힙합 문화를 담은 광고와 마케팅에 착수함으로써, 이들 요소가 지닌 대중적/힙 이미지에 부응하는 한편, 더욱 광범위한 문화로 통합시키는 데 일조했다. 춤, 패션, 그리고 수많은 음악적 요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의 귀를 재빠르게 사로잡은 것은 영어 말하기, 읽기, 쓰기의 새로운 규칙들이었다.

힙합 언어

미국의 대중문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일상 영어에 독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미국흑인음악은 여러 면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흑인 영가와 블루스의 시기 이전부터 미국흑인음악은 문화적 네트워크의 내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청중(초기에는 대부분 흑인)에게 당시의 상황과 해방 전략을 알려 주었다.

여러 해 동안 수많은 단어와 구절이, 그 맥락과 의미를 파악한 외부 지역사회로 흡수·사용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적용 과정은 미국 내 다양한 민족 집단에서 발생했지만, 미국 주류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미국흑인 음악이었다.

힙합 문화의 언어는 과거와 최근의 표현들을 확장한 것이다. 'hot'(1920년대), 'swing'(1930년대), 'hip'(1940년대), 'cool'(1950년대), 'soul'(1960년대), 'chill'(1970년대), 'smooth'(1980년대) 등의 표현은 재정의되어 힙합 언어로 편입되었다. 힙합 언어는 케케묵은 질문인 '무엇이 새로운가?'에 대한 차세대의 답이다.



사진 제공: © AP Images/The Plain Dealer, 모델 히크먼
오하이오 주에서 열린 여름방학 어린이 예술캠프와 같은 공식적인 프로그램에서도 어린 관객들의 눈을 끌기 위해 힙합 관련 주제를 사용한다.

힙합 문화의 영향

힙합 문화가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젊은(지금은 중년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주적이고 개인적·집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매체로 힙합을 활용하면서 신앙과 문화와 인종과 민족이 다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는 능력일 것이다. 힙합 문화는 미국영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언어에 영향을 주었다. 다문화 국가에서는 활발한 힙합 공동체가 이들 새로운 단어와 구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한다. 독일 힙합에서 호주 힙합, 필리핀의 ‘피노이 랩’, 아제르바이잔의 ‘아제리 랩’, 니제르의 ‘랩 니제리앙’에 이르기까지, 힙합은 이들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2003년 판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추가된 ‘bling-bling’(번쩍이는 장신구)이든, 아니면 2007년 판 <웹스터 사전>에 수록된 ‘crunk’(기분 좋다)이든 간에, 힙합 문화는

영어의 본질과 소리와 규칙을 변화시킨다. ‘hood’(‘neighborhood’의 준말), ‘crib’(사는 곳), ‘whip’(자동차) 등의 단어들은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이게 되었다. ‘what’s up’(안녕), ‘peace out’(잘 가), 그리고 지극히 유명한 ‘chill out’(긴장 풀어) 등의 표현은 TV 프로그램, 영화, 심지어 포천 500대 기업의 광고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미국 영어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힙합 문화와 같은 활발한 메커니즘과 급속한 기술 발전을 통해 30년 후에는 어떠한 말을 하고 쓰게 될지 모른다. 1999년 2월 5일자 <타임>지 표지에 실린 표현대로 미국이 ‘힙합 국가’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분명한 점은 영어가 힙합 문화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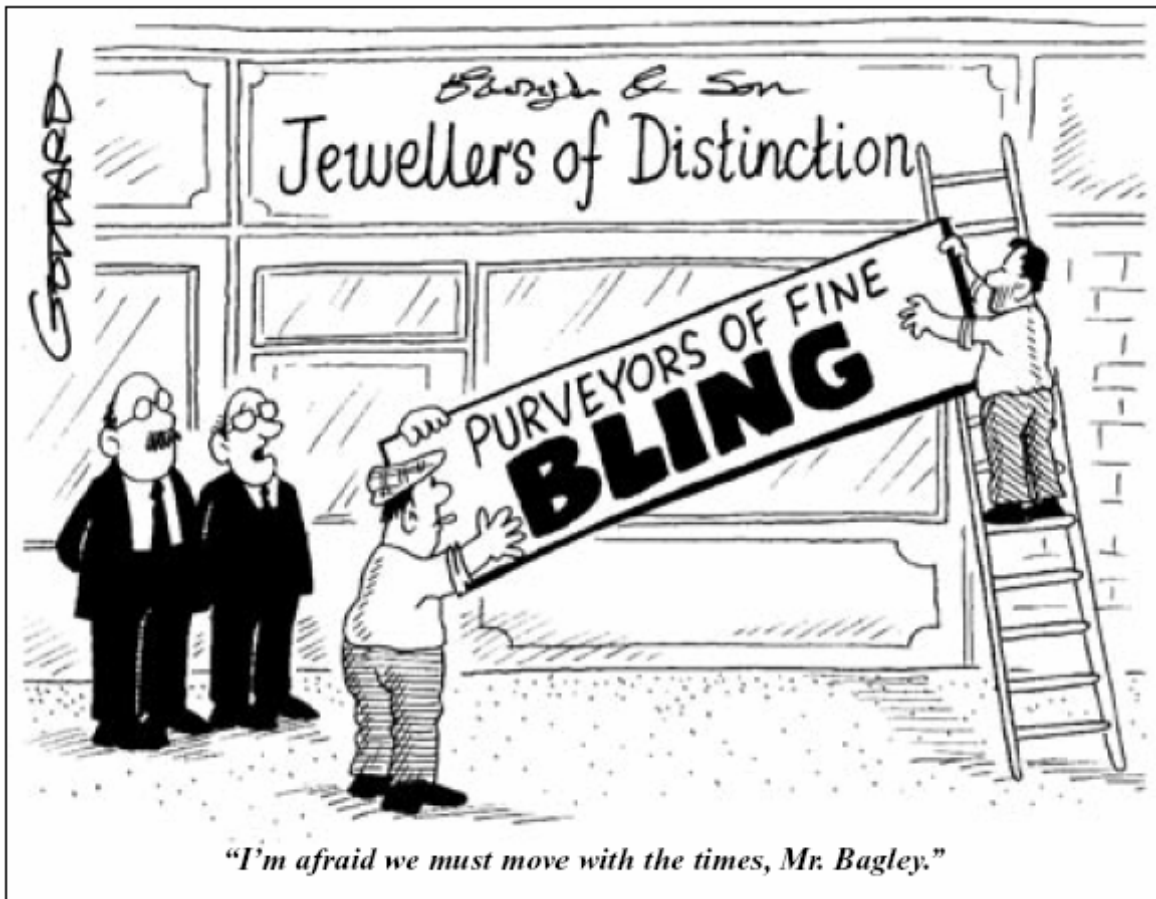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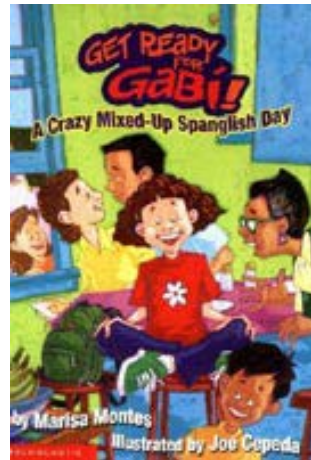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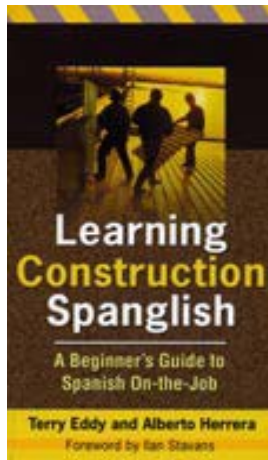
사진 제공: <http://www.cartoonstock.com>

영국에서 제작된 이 한 컷 만화에서는 'jewelry'(보석)라는 표현 대신 속어를 사용한 간판으로 바꾸고 있다.

만화 속 대사: "배글리 씨,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하겠지요."

스팬글리시 : 스페인어와 잉글리시의 결합

일란 스테이번스



Cover illustration copyright © 2003 by Joe Cepedo from GET READY FOR GABI! A CRAZY MIXED-UP SPANGLISH DAY by Marisa Montes. Reprinted by permission of Scholastic Inc.

스팬글리시에 관한 서적 3권. <공사장 스팽글리시(Learning Construction Spanglish)>는 언어가 뒤섞인 건축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일란 스테이번스의 저서 <스팬글리시: 새로운 미국영어의 탄생(Spanglish: The Making of a New American Language)>는 스팽글리시라는 현상을 기술한다. <가비를 위해 준비해! 정신없이 뒤섞인 스팽글리시 데이(Get Ready for Gabi! A Crazy Mixed-Up Spanglish Day)>는 아동도서이다. [Scholastic의 자료는 Scholastic Inc.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출판, 재전송, 방송, 수정 또는 개작, 조작, 복제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배포되거나 이용될 수 없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미국에서 스페인어와 영어가 뒤섞여 혼종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구어뿐만 아니라 문어에서도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일란 스테이번스는 매사추세츠 주 앰허스트에 위치한 앰허스트칼리지의 라틴아메리카·라티노 문화학 교수이다. 저서로는 <스팬글리시: 새로운 미국영어의 탄생(Spanglish: The Making of a New American Language)>(Harper Collins) 및 <신선한 언어(Lengua Fresca)>(Houghton Mifflin) 등이 있다.

미국의 '라티노'(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 인구는 증가하여 미 인구조사국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대략 4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의 라티노는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스페인어와 영어의 혼종어인 '스팬글리시'는 거리와 교실에서, 정치인들 사이에서, 종교계에서, 그리고 라디오와 TV와 인터넷에서 불명료하게 사용되고 있다. 스팽글리시는 라티노들의 정체성을 가장 순수하게 드러내 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스팽글리시의 근원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베리아 문명은 미국 남서부와 플로리다에 족적을 남겼다. 멕시코가

자국 영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인 콜로라도, 애리조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및 유타를 이웃 나라에 매각한 해인 1848년까지, 스페인어는 사업과 교육의 언어였다. 스페인어는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와 상호 작용했다. 그러나 앵글로계가 도착하자 스페인어와 영어는 혼종화의 과정을 겪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은 19세기 말 미국-스페인 전쟁의 발발로 강화되었다. 미국인들은 카리브해 지역에 도착하면서 영어도 함께 가지고 왔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서 아르헨티나 팜파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스페인어권에서 스팽글리시를 들을 수 있지만,



사진 제공: © jasonlove.com
스페인어와 영어가 섞이면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스팬글리시가 번성한 곳은 미국이다. 또한 미국 내 시골 지역에서도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영향력이 가장 막강한 지역은 라틴아메리카계가 정착한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텍사스

BALDO

BY HECTOR CANTÚ AND CARLOS CASTELLANOS



Reprinted with permission.

만화 <발도>는 매일 200여 종의 신문에 게재된다. 십대 청소년인 발도는 미국에 살면서 자신의 푸에르토리코 문화와 지배적 미국 문화가 뒤섞인 생활을 한다. 발도의 세상은 혼합된 것들로 가득하다. 근무하는 가게 이름인 'Auto y Rod'도 그 중 한 예이다.

[만화 대사] “여기 고객불만센터 있나?” “아..., 그럼요 저예요! 제가 도와 드릴 수 있어요. 아, 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고객불만센터에 대한 불만은 누구한테 말하지?”

주 샌안토니오 및 휴스턴, 일리노이 주 시카고,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뉴욕 시 등의 대도시이다. 아울러 스펡글리시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멕시코식, 쿠바식, 푸에르토리코식, 도미니카식 등 다양하다. 용법 또한 지역마다, 그리고 세대마다 다르다. 예컨대 최근에 멕시코에서 텍사스 주 엘파소로 이민 온 사람은,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뉴저지 주에 사는 콜롬비아계 미국인 2세와 확연히 다른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스펡글리시 화자들이 채택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한 문장 안에서 스페인어와 영어를 번갈아 쓰는 ‘코드 스위칭’이다. 둘째, 동시통역이다. 셋째, <옥스포드 영어사전>이나 <스페인어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예컨대 ‘Watch out!’(조심해!) 대신 ‘Wáchale!’라고 하거나, ‘roof’(지붕) 대신 ‘rufo’라고 하는 식이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경계’ 언어가 있다. 프랑글레(Franglais·프랑스어+영어), 포르투놀(Portuñol·포르투갈어+스페인어), 히브리야(Hibriya·히브리어+아랍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언어 모두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설익은 언어라고 간주한다. 반면 그 독창성에 박수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 스펡글리시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흑평가들은 라티노들이 과거의 이민자들과 달리 미국 문화에 통합되지 못하는 증거가 스펡글리시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견해가 다르다. 라티노들은 이미 최대 규모의 소수집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의 이민 패턴은

다른 집단과 동일하지 않다. 우선 그들의 출생지는 미국의 코앞에 있다. 라티노들은 계속해서 유입된다. 반면 다른 집단은 특정 기간 중에 대다수가 미국에 온 상태이다. 또한 오늘날의 미국 영토 상당 부분은 수 세기 동안 스페인어를 사용했다

아울러 1980년대에 전국적으로 퍼진 연방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이중언어교육’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거친 라틴아메리카계 어린 학생들은 미약하게나마 스페인어와 영어에 함께 연결되어 있다.



사진 제공: © AP Images/찰리 리들
캔자스에 사는 6살짜리 여자 아이가 이중언어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 <http://www.theredseat.com>

'보스턴 레드삭스'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팬들이 스페인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응원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다른 이민자 언어와 달리 스페인어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다. 오히려 미국에서 스페인어의 존재감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도전과제를 받아들이면서 항상 변화하는 것이다.

필자는 10년 동안 스페인어 표현들을 기록하면서 스페인어라는 현상에 흠뻑 빠져들었다. 2003년 필자는 6000단어 정도가 수록된 사전을 간행했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1장을 스페인어로 번역했다. 이후로도 번역을 계속하여 지금은 소설의 절반을 완성했다.

스페인어에 대한 호기심은 무수히 많다. 스페인어는 방언인가? 크리올어와 비견되어야 하는가? 혹은 영어와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식별 가능한 통사구조가 있는, 성숙하고도 자족적인 언어가 될 것인가? 이들 질문에 대해 언어학자마다 대답이 다른 듯하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언어학자 막스 바인라이히를 인용함으로써 마지막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디시어의 역사에 관한 여러 권의 저술을 쓴 바인라이히는 언어와 방언의 차이에 대해, 언어의 뒤에는 육군과 해군이 있다고 언급했다. 필자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집단에서 스페인어를 글로 쓰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스페인어라는 의사소통 형식이 더 이상 철저하게 구어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이미 스페인어로 된 소설과 시, 그리고 영화와 노래와 무수히 많은 인터넷 사이트가 존재한다.

필자의 한 제자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스페인어를 이렇게 부른다. 'la lengua loca'(괴짜 언어).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랍어에서 영어로

앨런 핼스미스



사진 제공: 로빈 L. 이거
이스탄불에 있는 블루 모스크. '모스크'라는 단어는 아랍어에서 왔다.

영어 단어 수백 개가 아랍어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본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일상용어와 전문용어의 기원을 추적한다. 앨런 핼스미스는 프리랜스 작가로서, 여러 해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해 연안국들에서 교사와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현재 터키에 산다.

아랍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생각해 낼 수 있는가? ‘꽤 많이’라고 즉각 대답할지 모른다. ‘mosque’(모스크), ‘minaret’(첨탑), ‘bedouin’(유목민), ‘sheik’(족장), ‘caliph’(칼리프), ‘sultan’(술탄) 등의 단어는 아랍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랍어에서 온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들 단어가 ‘camel’(낙타), ‘wadi’(물이 마른 강), ‘dhow’(다우 범선) 등의 단어처럼 아랍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영어 단어와 본래의 아랍어 단어의 모습이 거의 동일하다. 반면 소리나 의미가 다른 것들도 있다. ‘mosque’는 ‘masjid’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bedouin’은 단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bedawi’의 복수형인 ‘bidawan’에서 파생했다. ‘dhow’는 ‘dawa’에서 온 단어이다. 그러나 아랍어를 하는 친구들에게 이 단어를 물으면 모른다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더 이상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별로 놀랄 게 없었다. 여태까지 언급한 단어들은 모두 아랍 또는 이슬람 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랍어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 등 훨씬 익숙한 것들도 한때는 이국적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apricot’(살구), ‘orange’(오렌지), ‘lemon’(레몬), ‘lime’(라임) 등의 과일, 그리고 ‘artichoke’(아티초크), ‘spinach’(시금치), ‘aubergine’(가지) 등의 채소는 이국적인 맛과 발음이 더 이상 아니지만 아랍어가 어원이다. 예컨대 ‘lemon’은 아랍어 ‘laymun’에서 중기 라틴어와 중기 프랑스어를 차례대로 거쳐 중세 영어로 유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발음상의 변화는 미미했다. 반면 ‘artichoke’는 아랍어 ‘al-khurshuf’에서 이탈리아어를 거쳐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실제로 영어에는 아랍어에서 차용한 단어가 수백 개나 된다. 이들 단어 중 극소수만이 직접적으로 유입되었다. 대부분의 단어들은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또는 라틴어 등으로 변장한 채 들어왔다. 지난 1000년 동안 영어는 외래 요소들을 게걸스레 먹어치웠다. 프랑스어 및 라틴어가 기원인 단어들은 현대 영어 어휘에서 대략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1066년 노르만 정복 이후 300년 동안 프랑스어는 영국의 궁정, 귀족, 그리고 의회의 언어로 사용되었다



사진 제공: © AP Images/캐럴 프린슬루
 'dhow'라는 단어는 아랍어 'dawa'에서 왔다.

아울러 프랑스어는 1731년까지 영국에서 법률언어로 자리를 지켰다.

그러므로 중세시대의 아랍어는 주로 프랑스어를 통해 영어로 유입되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들 단어의 대다수가 수학, 천문학, 화학 등 전문분야의 용어라는 사실이다. 1300년대에 영어로 유입된 단어인 'alchemy'(연금술)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아랍어 'al-kimya'에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alkali'(알칼리), 'algorithm'(알고리즘), 'alembic'(증류기), 'almanac'(천문력) 등의 단어도 같은 시기에 영어 어휘로 편입되었다. 이들 단어의 접두어 'al-'은 아랍어 정관사인 'al'(the)에서 왔다. 따라서 'alkali'는 'al-qili'(소송나물의 재)에서 파생된 것이다. 과거에 무언가를 증류하는 데 사용했던 기구인 'alembic'의 어원은 'al-inbiq'(증류기)이다.

아랍-이슬람 문명은 중세시대에 전성기를 누렸고, 대략 500년 동안 아랍어는 학술, 문화 및 지적 진보의 언어였다. 고대 그리스의 과학·철학 서적 대부분이 9세기에 아랍어로 번역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랍의 학자, 과학자, 의사 및 수학자들이 거둔 위대한 업적은 이후 스페인의 이슬람 대학들을 통해 서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예컨대 우리

가 사용하는 십진법은 인도의 '영(0)' 개념을 바탕으로 아랍 수학자들이 고안한 것이다. 숫자 0을 뜻하는 'cipher'는 아랍어 'sifr'(비어 있음)에서 왔다.

아랍 학문은 11세기에서 13세기, 그리고 이후로도 중세 영국에 널리 퍼졌다. 당시 유럽의 저명한 학자였던 아벨라르는 1100년대 초 알-흐와리즈미(al-Khwarizmi)의 천문표를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algebra'(대수)와 'algorithm'이라는 두 개의 친숙한 수학용어가 영어로 유입되었다. 'algorithm'은 알-흐와리즈미의 이름 자체에서 온 것이고, 'algebra'는 'al-jabr'(나뉜 부분의 결합)에서 파생했다. 이 단어는 알-흐와리즈미의 수학 저서 <통합과 균형을 통한 계산(Hisab al-Jabr w' al-Muqabala)>에 등장한다. 흥미롭게도 아랍어 'al-jabr'와 영어 'algebra' 모두 '골절 치료'나 '접골'을 의미하기도 한다. 역사적 용례에 따라 단어의 정의를 나열하는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는 'algebra'의 첫 번째 의미를 '골절의 외과적 치료'라고 정의하면서 1565년의 인용문을 제시한다. "'algebra'라는 아라비아 단어는 뼈의 골절뿐만 아니라 골절의 복구도 의미한다."

아랍인 학자들이 지식의 확장에 가장 많이 기여한 부분

은 천문학이다. 오늘날의 천문도를 살펴보면 아랍어에서 파생된 별 이름 수백 개를 발견할 수 있다. 일부 예를 들어 보면 ‘Altair’(견우성), ‘Aldebaran’(알데바란), ‘Betelgeuse’(베텔게우스), ‘Vega’(직녀성), ‘Rigel’(리겔), ‘Algol’(알골) 등이 있다. ‘Algol’의 파생 과정은 흥미롭다. 이 단어는 ‘악마’를 뜻하는 아랍어 ‘al-ghul’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영어 단어 ‘ghoul’(시체를 먹는 귀신) 및 ‘ghoulish’(악마적인)가 생겼다. ‘Algol’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이 별의 모양새가 유령 같기 때문이다. 식쌍성(飾雙星)인 이 별은 흐릿하고 이틀마다 밝기가 변한다. 별 이름 말고도 ‘zenith’(천정), ‘nadir’(천저), ‘azimuth’(방위각) 등 많은 천문학 용어가 아랍어에서 파생했다.

‘talisman’(부적)과 ‘elixir’(연금약액)는 아랍 연금술에서 기인한 단어들이고, ‘almanac’(알만악)은 아라비아 천문학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그 밖의 전문용어로는 ‘caliper’(캘리퍼스), ‘caliber’(지름), ‘aniline’(아닐린), ‘marcasite’(백철광),

‘camphor’(장뇌) 등이 있다. 아울러 아랍어 덕택에 귀금속의 무게를 ‘carat’(캐럿)으로 재고, 종이를 ‘ream’(연·500장) 단위로 거래한다. 아랍어 ‘girat’는 무게를 측정하는 소단위이고, ‘rizmah’는 ‘짐짝’이나 ‘몽치’를 가리킨다. 그 밖에 이 범주에서 흥미로운 두 단어로는 ‘average’(평균)와 ‘alcohol’(알코올)이 있다. 자주 사용하는 수학적 개념인 ‘average’는 약간 모호하게도 아랍어 ‘awariya’(과손된 상품)에서 파생했다. 해상에서 과손된 상품의 비용에 대해 거래 관련 당사자들이 평균적인 비용을 산출해야 했기 때문에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alcohol’은 중동에서 의료용 아이새도로 사용되는 흑색 분말인 ‘al-kohl’에서 파생했다. 흑색 분말과 알코올 사이의 관계는 자명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황화안티몬으로 제작되는 흑색 분말을 어떤 물질의 정수로 생각한다면 모종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라는, 비교

적 최근에 해당하는 시기에 시인 새뮤얼 콜리지는 셰익스피어에 관한 평론에서 악당 이야기를 “자기중심주의의 알코올”이라고 묘사했다.

중세시대에 압도적으로 많은 아랍어 전문용어 및 과학 용어가 영어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아랍-이슬람 문명이 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음에 제시하는 아랍어 범주는 사치품과 의식주의 발달, 결과적으로 더 높은 생활수준을 보여 준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1533년~1603년)에 이르러 영국의

해상무역인들은 유럽이라는 경계를 넘는 세계를 발견하여 중동과 그 밖의 지역에서 값비싸고 이국적인 물건과 관습을 들여왔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당시 이들 상인이 함께 가져 온 아랍어 다수가 우아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양식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sugar’(설탕), ‘syrup’(시럽), ‘julep’(감미음료), ‘sherbet’(셔벗), ‘marzipan’(마지팬) 등은 모두 아랍어가 어원이다. 물론 엘리자베스 시대를 살던 가정주부들의 소평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고급품들이었다. ‘coffee’는 아랍어 ‘gahwah’에서 파생했는데, 이 아랍어 단어는 예멘이 기원이다. ‘mocha’(모카)는 예멘의 항구도시 이름에서 왔다. 아울러 ‘caraway’(캐러웨이), ‘saffron’(사프란), ‘cumin’(커민) 등의 향신료 이름도 모두 아랍어에서 파생했다.

‘sash’(장식띠), ‘shawl’(숄), ‘sequin’(시퀸), ‘muslin’(모슬린), ‘mohair’(모헤어), ‘damask’(다마스쿠), ‘cotton’(무명) 등의 이국적이고 화려한 직물과 장식도 앞서 언급한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풍족함을 나타낸다. ‘muslin’은 이 직물의 산지인 이라크 모술(Mosul)에서 유래했다. ‘sash’는 모슬린을 뜻하는 또 다른 아랍어 표현 ‘shash’에서 왔다. ‘damask’라는 직물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다마스쿠스(Damascus)에서 유래한다. 얼룩고양이를 가리키는 말인 ‘tabby’도 바그다드 알-타비야(al-Tabiyya) 지역에서 제작되는 줄무늬 호박단에서 왔다.



사진 제공: [향신료] © AP Images [직물] © AP Images [커피] © AP Images/패비언 비머 여러 향신료와 직물 용어, 그리고 ‘coffee’라는 단어는 아랍어가 어원이다.



© AP Images/Gustavo Fa



© AP Images

'camel', 'saffron', 'jar'라는 단어는 모두 아랍어가 어원이다.



Courtesy Robin L. Yeager

'siquin'은 화폐를 찍어내는 금형을 의미하는 아랍어 'sikha'에서 파생했다.

안락한 생활을 시사하는 'sofa'(소파), 'alcove'(벽감), 'carafe'(유리 물주전자) 역시 아랍어에서 차용한 단어들이다. 'sofa'는 'suffah'(긴 벤치)에서, 'alcove'는 'al-qubbah'(아치)에서, 'jar'는 'jarrah'(토기 물병)에서, 'carafe'는 'gharrafa'(병)에서 왔다. 또한 영어 어휘는 색을 나타내는 'crimson'(심홍색), 'carmine'(진홍색), 'azure'(하늘색), 'lilac'(얇은 자색) 등의 아랍어계 단어들을 통해 풍부해졌다. 여가활동과 관련된 단어로는 테니스 등에서 사용하는 'racket'(라켓)이 있는데, 아랍어 'raha'(손바닥)가 어원이다.

아랍인들은 바다를 건너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아랍어에서 차용한 단어들 중에 해상무역과 관련된 표현들이 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뱃사람들의 표현인 'mizzen mast'(깃뚝대)의 경우, 'mizzen'은 아랍어 'mazzan'(돛대)에서 왔다. 한편 'admiral'(제독)이라는 단어는 기묘하게도 'amir al-'이 어원이다. 이 단어는 'amir al-bahr'(바다의 왕자)에서 일부가 잘려 나간 형태이다.

한편 'arsenal'(무기고)은 'dar as-sina'ah'(제조하는 집)에서 파생했다. 'sina'ah'는 '예술, 기술'을 의미한다. 한편 'magazine'(탄약고)이라는 단어는 'makhzan'(저장소)에서 왔다.

무역 관련 단어인 'tariff'(관세) 역시 아랍어가 어원이다.

그 밖에도 흥미로운 단어가 많다. 'adobe'(아도비 벽돌), 'crocus'(크로커스 꽃), 'genie'(마신), 'popinjay'(수다쟁이) 등도 아랍어를 다소 '혼동'함으로써 탄생한 단어들이다. '혼동하다'라는 뜻의 'garble'조차도 아랍어 'gharbala'(향신료를 체로 쳐서 고르다)에서 왔다. 그러나 '혼동' 여부를 떠나 아랍어에서 파생한 단어들은 영어를 대단히 풍부한 언어로 만들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기사는 <사우디 아람코 월드(Saudi Aramco World)> 2007년 3·4월호의 허가 하에 다음 출처의 기사를 전재한 내용입니다.

[<http://www.saudiaramcoworld.com/issue/200702/from.arabic.to.english.htm>]

말안장에 오른 아랍어

게리 폴 나브한

말, 기수, 마구 등과 관련된 아랍어 표현들은 지구를 거의 반 바퀴나 돌아 미국 남서부 사막 지대에서 새로운 고향을 찾았다. 이들 표현은 아랍어에서 스페인어로 유입되었다가 스페인 문화와 ‘앵글로’ 문화가 만나면서 다시 미국영어로 들어갔다.

8세기 초, 아랍인과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인들로 구성된 이슬람 군대는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정복했다. 아랍인들이 알-안달루스라고 불렀던 남부 지역에서는, 아바스 왕조에게 자리를 내 준 시리아계 우마이야 왕조의 한 왕자가 왕국을 건설하여 750년을 전후하여 문명을 발전시켰다. 1492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첫 번째는 신대륙의 발견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식민지로 삼을 새로운 반구가 개척되었다. 두 번째는 스페

인에서 무슬림과 유대인들을 최종적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그들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갖고 영구적인 문화적 각인을 남겨 두고 떠났다.

스페인인들—아랍인과 베르베르인 난민을 포함한—은 신세계를 식민화하면서 말도 함께 데리고 왔다. 또한 말을 부리는 데 사용하는 아랍어 표현들도 함께 들어왔는데, 이들 표현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위치한 사막 지대의 영어와 멕시코계 스페인어인 ‘카우보이 링고(cowboy lingo)’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필자는 1975년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서 거대한 규모로 목장을 운영하는, 유서 깊은 지역사회로 이사하면서



사진 제공: © AP Images/에릭 드레이퍼
아라비아 말을 탈 준비를 하는 소녀.

카우보이 링고를 듣기 시작했다. 필자와 아내는 말, 양, 그리고 칠면조를 사육한다. 우리는 카우보이, 목장주, 그리고 대형 동물을 담당하는 수의사들과 자주 접하는데, 모두들 450여 년 전 아랍어에서 파생한 표현들을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

예컨대 말 타는 기술이 탁월한 사람을 가리켜 ‘one damn fine jinete’라고 부르는데, ‘jinete’는 원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개발된, 전장에서 유연한 말 타기 기술로서, 지금은 기수 자체를 가리키게 되었다. 이 단어는 애리조나 소노란 사막지대의 스페인어 ‘xinete’에서 왔다. ‘xinete’는 안달루시아어 ‘zanati’에서 파생했는데, 현 알제리 지역의 부족명

‘Zanatah’의 자취가 남아 있는 단어이다.

소노란 사막 지역의 멕시코 카우보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해 온 미국 카우보이들은 말안장을 여전히 ‘albardón’이라고 부르지 모른다. 이베리아어 ‘albarda’에서 파생한 이 표현은 말의 길마를 의미하고, 아랍어 어원은 ‘al-barda’이다. 카우보이들이 사용하는 그 밖의 마구들 중에서 가죽 벨트를 ‘acion’이라고 하는데, 아랍어 ‘as-siyur’에서 온 말이다. 한편 채찍을 뜻하는 ‘azote’는 아랍어 ‘as-sut’가 어원이다. 둥글게 에워싸는 가죽 띠는 ‘argollas’라고 부르는데, 아랍어 ‘allgulla’에서 왔다.

아랍어계 마구 명칭 중에서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굴레 장식’ 또는 ‘고삐’를 의미하는 단어인 ‘hackamore’로서,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 단어는 ‘머리에 쓰는 것’을 의미하는 아랍어 ‘sakima’와 안달루시아어 ‘jaquima’를 거쳐 만들어졌다.

또한 동물의 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도 아랍어에서 파생했다. 필자는 색맹이기 때문에 말, 소, 양의 가죽 색에 관해 카우보이들이 사용하는 표현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필자는 적갈색종마인 ‘almagre’를 식별할 수 있고, 그 단어가 아랍어 ‘almagra’(붉은 땅)에서 파생했다는 사실도 안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헷갈렸던 표현은 코끝부터 꼬리까지 온몸이 진갈색인 말을 일컫는 표현인 ‘Alice-Ann’이었다. 그 표현이 아랍어 ‘alazan’(불그스름한 목재)에서 스페인어 ‘alazán’을 거쳐 온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최근 필자는 잭이라는 사람이 쓴 오행시를 읽었는데, ‘Alice-Ann’이라는 표현의 이중적 의미를 이용한 언어유희였다.

서부에서 한 카우보이의 여자친구

이름이 엘리스 앤이었지, 셸이 아니었네.
그런데 사실은,
그 친구는 말이라네.
그러니 엘리스는 남자친구일지도 모르겠네.

게리 폴 나브한은 <어떤 이들은 왜 뜨거운 것이 좋은가 (Why Some Like It Hot)>(Island Press, 2004) 등 지역사회와 고유 음식의 공동 진화에 관한 저서 20권을 집필했다. 또한 <건조한 세상 사이로는 무엇이 흐르는가: 아라비아 사막과 아메리카 사막의 문화, 농업, 음식(What Flows Between Dry Worlds: Culture, Agriculture and Cuisine in Arabian and American Deserts)>이 발간될 예정이다. 저자의 이메일 주소: gary.nabhan@nau.edu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기사는 <사우디 아람코 월드(Saudi Aramco World)> 2007년 3·4월호 인쇄본 36~38페이지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2007년 3·4월호의 이미지들은 아람코 사의 ‘Public Affairs Digital Image Archive’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제공: © AP Images/재스퍼 잉갈스
와이오밍에서 소를 몰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 카우보이.

추가 문헌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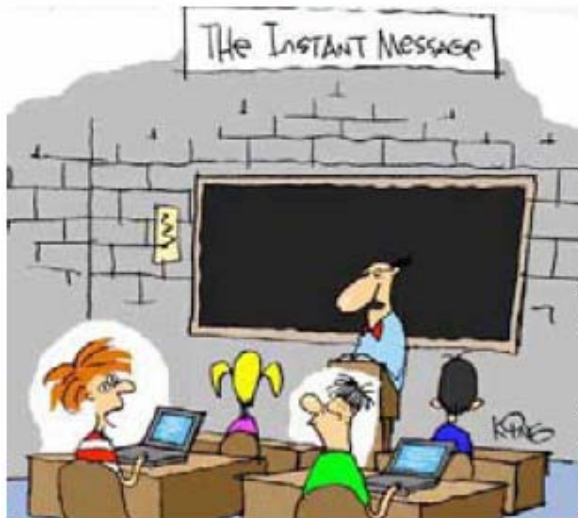
서적

Berger, Harris M. and Michael T. Carroll, eds. *Global Pop, Local Language*.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03.

Ostler, Rosemarie. *Dewdroppers, Waldos, and Slackers: A Decade-by-Decade Guide to the Vanishing Vocabulary of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ennycook, Alastair. *Global Englishes and Transcultural Flows*. New York: Routledge, 2006.

Stenström, Anna-Brita, Gisle Andersen, and Ingrid Kristine Hasund. *Trends in Teenage Talk: Corpus Compilation, Analysis, and Findings*. Amsterdam; Philadelphia, PA: J. Benjamins, 2002.



“How did they get through boring lectures back in the days of paper? I can IM and it looks just like note-taking!”

사진 제공: <http://www.jerryking.com> <http://www.fno.org>

학생들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교실은 교사들에게 새로운 골칫거리이다. 수업 중에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되고 있다.

[만화 대사] “종이를 쓰던 시절에는 그렇게 지겨운 수업을 어떻게 들었죠? 전 인스턴트 메시징을 사용하는데, 노트 필기랑 똑같아요!”

인터넷 사이트

미국 정부

국무부 교육문화국

영어교육포럼

<http://exchanges.state.gov/forum>

간행물 목록

<http://exchanges.state.gov/education/engteaching/pubs/>

미국의 소리

VOA 라디오 영어강좌

<http://www.dyned.com/voa/>

비정부기구

PBS 미국영어

<http://www.pbs.org/speak/>

잉글리시 데일리

<http://www.englishdaily626.com>

어빈 딕셔너리

<http://www.urbandictiona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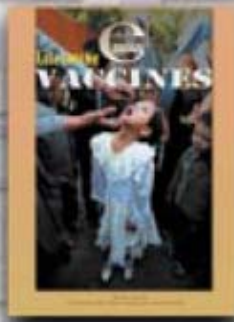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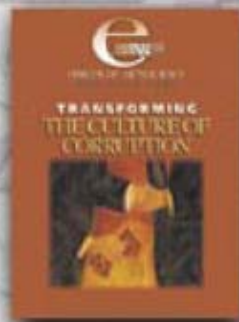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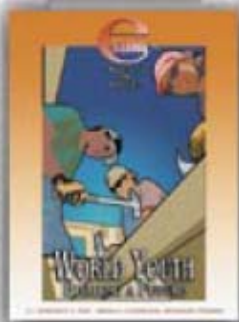
미 국무부는 위에 소개된 자료의 내용과 이용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터넷 링크는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 MONTHLY JOURNAL
ABOUT THE UNITED STATES
OFFERED IN MULTIPLE
LANGUAGES**

Five Thematic Editions:

- Economic Perspectives
- Foreign Policy Agenda
- Global Issues
- Issues of Democracy
- Society & Values



REVIEW THE FULL LISTING OF TITLES AT
<http://usinfo.state.gov/pub/ejournalusa.html>